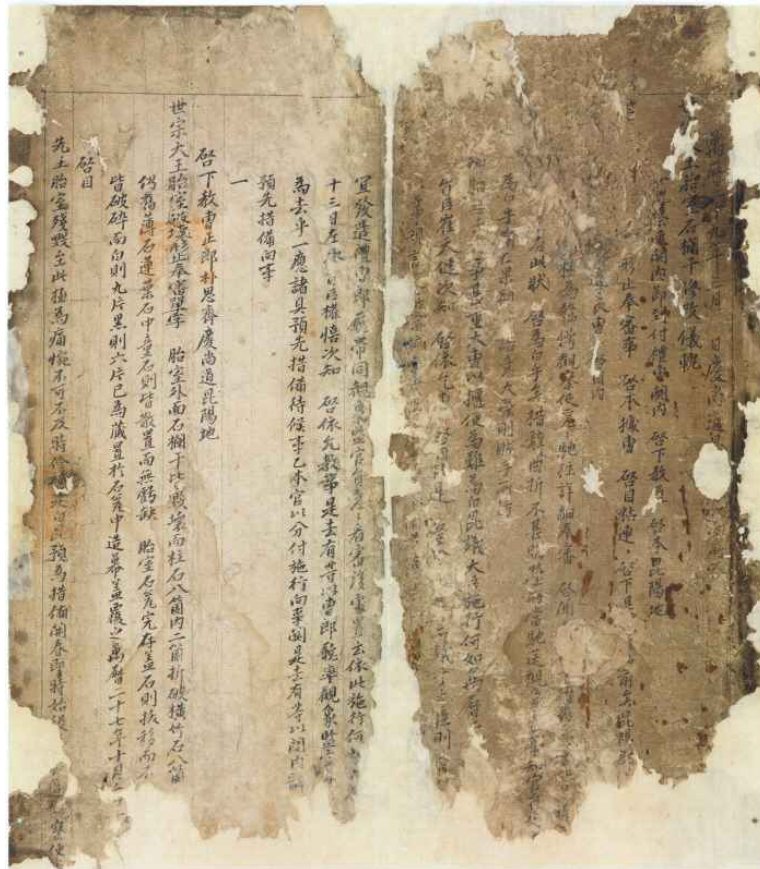


사 진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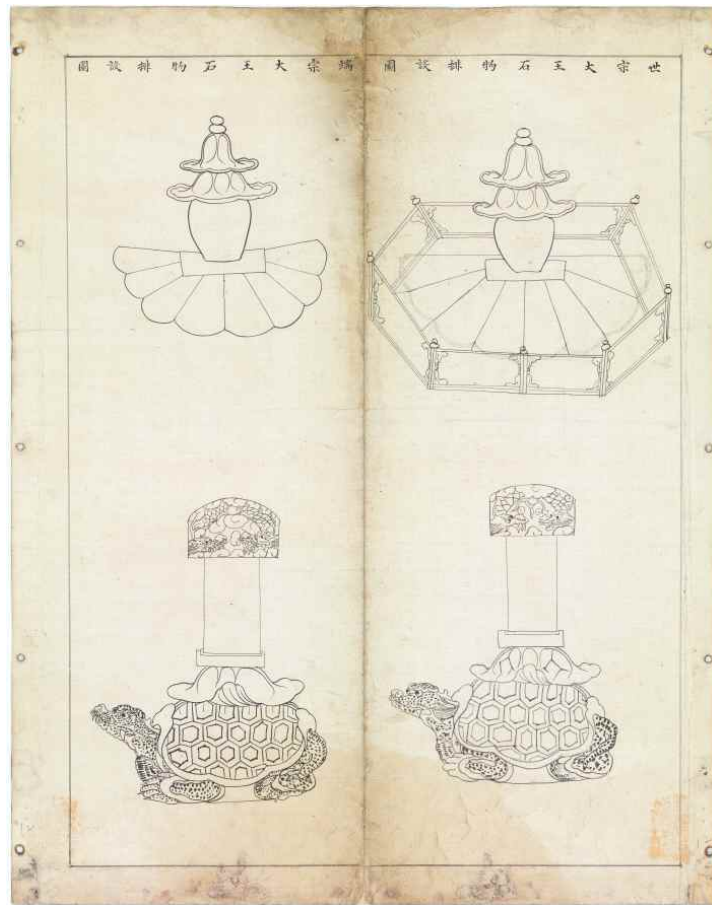


세종 태실 석난간 수리를 기록한 의궤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 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

1601년(선조 34) | 가로: 32.2cm, 세로: 74.0cm | 경상남도 사천시청 | 보물

임진왜란 중 파괴된 세종대왕 태실의 석물을 1601년(선조 34) 수리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제목은 ‘석난간’으로 되어 있으나 파괴된 정도가 심하여 실제로는 관련 석물 일체를 보수하였다. 현존하는 의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의궤 중 하나인 동시에 유일본으로서 조선 중기 태실의 관리와 보존을 살피는데 있어 필수적인 자료이다.



세종·단종 태실 표석 건립과정을 기록한 의궤

(세종단종태실표석수립시의궤 世宗端宗胎室表石豎立時儀軌)

1734년(영조 10) | 가로: 35.0cm, 세로: 87.0cm | 경상남도 사천시청 | 보물

1734년(영조 10) 4월부터 9월까지 경상남도 사천의 세종대왕 태실과 단종대왕 태실의 표석 건립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동원된 인력은 약 1,170명이며, 5일 동안 진주에서 석물을 운송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태실과 표석의 그림이 있어 현재 전해지지 않는 세종대왕 태실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유일본의 의궤로서 영조재위 초기 태실의 관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세종 안태용 도자기(태항아리)와 태지석
(世宗安胎用陶瓷器(胎缸), 胎誌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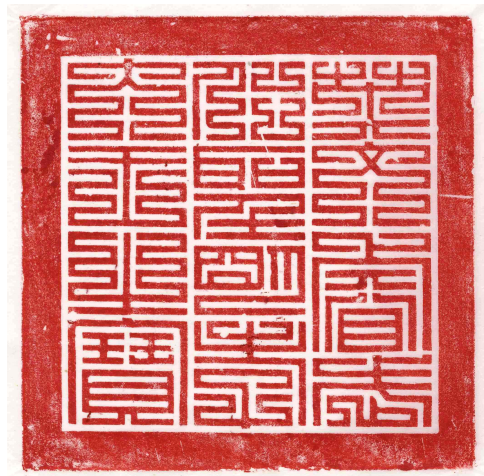
태항아리 1601년 추정, 태지석 1601년(선조 34) | 국립고궁박물관

태항아리 몸체 높이: 25.4cm, 입지름: 17.6cm, 바닥지름: 13.2cm

태항아리 뚜껑 높이: 8.6cm, 지름: 19.9cm

태지석 가로: 21.6cm, 세로: 21.9cm, 두께: 3.5cm

세종대왕의 태를 넣은 안태용 백자 태항아리(내항아리)와 태지석이다. 임진왜란 직후인 1601년(선조 34)에 전쟁 중 훼손된 세종대왕 태실을 수리할 때 제작하여 안치한 것으로 추측된다. 매우 이례적인 형태로 몸체에 3개의 고리가 이중으로 모두 6개 붙어 있고, 뚜껑에도 3개의 고리가 같은 방식으로 부착되어 있다. 표면이 매끈하지 못하고, 유약이 매우 얇고 고르지 못하다. 세종대왕의 태항아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장기간의 전쟁 직후 급히 태실을 보수해야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찾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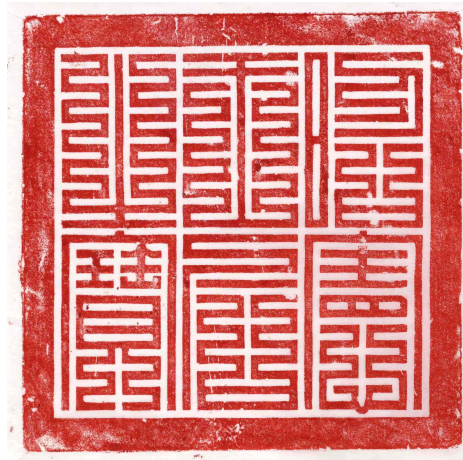


세종에게 올린 시호를 새긴 금보
(세종 상시호 금보 世宗上諡號金寶)

1450년(문종 즉위년) | 가로 10.2cm, 세로 10.2cm, 높이 6.9cm | 보물 | 복제품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하던 해인 1450년에 세종에게 올린 시호가 새겨진 금보, 즉 시보(諡寶)이다. 인면에는 ‘영문예무 인성명효 대왕지보 英文睿武 仁聖明孝 大王之寶’가 고대문자인 전서로 새겨져 있다. 인장(印章/인신印信)은 지위와 권능을 증명하고, 고대문자는 오랜 시간의 권위와 주술의 힘을 갖는다. 세종의 시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영문예무 英文睿武 나라를 잘 다스리셨고 군사에 통달하셨으며,
인성명효 仁聖明孝 어진 성인이시고 지극한 효도를 실천하신
대왕지보 大王之寶 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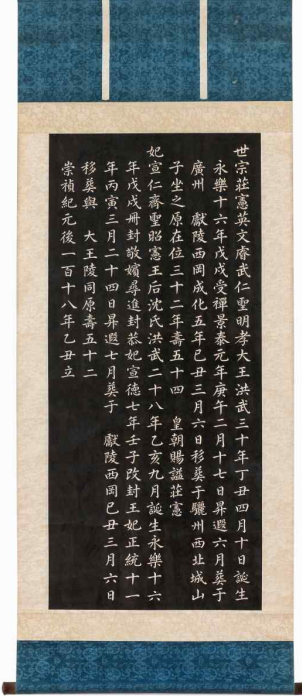


세종비 소헌왕후에게 올린 시호 금보

(세종비 소헌왕후 상시호금보 世宗妃昭憲王侯上諡號金寶)

1446년(세종 28) | 금속 | 가로 10.1cm, 세로 10.2cm, 높이 6.7cm | 국립고궁박물관 | 보물

세종 28년에 승하한 소헌왕후에게 올린 시호가 새겨진 금보이다. 인면에는 '소헌왕후지보(昭憲王后之寶)'하고 새겨져 있다. 소헌왕후(1395~1446)는 성은 심씨(沈氏), 본관은 청송이다. 문하시중 심덕부의 손녀이고 영의정 심온의 따님이다. 태종 8년(1408)에 충녕군과 가례를 올렸다. 시호 '소헌'은 '착한 행실이 온 세상에 알려져 본보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세종대왕 영릉비 탑본 전면(前面)	세종대왕 영릉비 탑본 후면 음기(後面 陰記)

세종대왕 영릉비 탑본
(世宗大王英陵妃搨本)

1745년(영조 21) | 종이, 비단, 나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면> 전체 세로 244.0cm, 가로 105.0cm

탑본면 세로 165.5cm, 가로 73.9cm

<음기> 전체 세로 246.0cm, 가로 105.0cm

탑본면 세로 165.5cm, 가로 73.9cm

세종과 소헌왕후 영릉에 세운 표석을 먹으로 찍어낸 후, 문양이 있는 비단으로 주위를 꾸민(장황 裝潢) 탑본이다. 원래 영릉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태종 헌릉의 서쪽 언덕에 조성하였는데(1446년, 세종 28), 풍수에 대한 논의 끝에 1469년(예종 1)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영릉이 최초로 조성된 당시에는 신도비를 세웠는데, 여주로 옮겨진 후에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았다. 1745년(영조 21)에 비로소 표석이 세워졌으며, 이때 이 탑본을 만들었다.